

대림 4주일 감사성찬례

집전: 최바우로 신부      설교: 조프란시스 신부      보혈조력: 정스테반  
지휘: 이유니스      반주: 정모니카/지헬레나      선창: 김니콜라

개회예식

†입당성가 ..... 139장(1-3) ..... 다 함 께  
†정심(淨心)기도 ..... 6쪽 ..... 집 전 자  
†죄의고백 ..... 6쪽 ..... 다 함 께  
†기원송가 ..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 다 함 께

말씀의 전례

†본 기도 ..... 집 전 자  
은혜로우신 하느님, 성모 마리아의 순종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나이다. 구하오니,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굳센 소망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1독서 ..... 사무하 7:1-11, 16 ..... 말 은 이  
성 시 ..... 시편 89편 ..... 다 함 께



1 주여, 내가 당신의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리이다.  
○ 당신의 미쁘심을 대대로 |전하리이다.

2 당신께서 다짐하신 |사-사랑,  
○ 그 미쁘심은 하늘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3 나는 내가 뽑은 자와 계약을 |맺-이고  
○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다.

4 내가 너를 왕위에 |앉히고  
○ 네 후손 대대로 왕 노릇하게|하리라.

5 그는 나를 불러 나의 아버지, 나의 |하느님,  
○ 내 구원의 바위이십니다 |하겠이-며,

6 나는 그를 만아들로 |삼-이아  
○ 세상 임금 중에 가장 높은 임금으로 |세위리-라.

◎ 영광이 |성부 와 ○ 성 |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 |아-멘

2독서 ..... 로마 16:25-27 ..... 말 은 이

†복음환호송 ..... 말 은 이

†복음서 ..... 루가 1:26-38 ..... 말 은 이

설교 ..... 프란시스 신부  
세례성사 ..... 순서지 ..... 다 함 께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 ..... 22쪽 ..... 다 함 께  
†봉헌성가 ..... 444장 ..... 다 함 께  
성찬기도 ..... 23쪽 ..... 1 양 식  
거룩하시다 ..... 103쪽(D곡) ..... 다 함 께  
주의기도 ..... 28쪽 ..... 다 함 께  
성체나눔 ..... 29쪽 ..... 다 함 께  
하느님의 어린양 ... 106쪽(D곡) ..... 다 함 께  
성체성가 ..... 646장 ..... 다 함 께  
†영성체후기도 ..... 31쪽 ..... 다 함 께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가 이 성찬으로 주님의 자비하신 은총을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 성사를 공경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마음을 갖추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 나이다. 아멘.

교회소식 ..... 신 자 회 장

파송예식

†축복기도 ..... 32쪽 ..... 집 전 자  
†파송성가 ..... 139장(4-7) ..... 다 함 께  
(†는 일어섬)

	이번 주일(12월 24일)	다음 주일(12월 31일)
1독서	김소정	최서은
2독서	권용준	최자연
대 도	생 략	권순호
다음주일 전례독서	이사 61:10-62:3   시편 148 갈라 4:4-7   루가 2:22-40	
성 가	147   160   168   550	
복 사	최하현	보혈조력      정요셉
다음주간 교회청소	<5조> 정국진 이숙영 정연창 박순호	

(1997-2023 / 교회설립 26주년)



성공회 산본교회

St. Clare's Anglican Church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1, 청진빌딩 7층 ☎ 031-397-0443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

2023년 12월 24일 대림 4주일 · 나해 · 자색

제27-52호

마리아,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복음은 천사 가브리엘이 시골 처녀 마리아 앞에 나타나, 인류의 구원자 예수를 잉태하리라는 소식을 전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서 전체를 통틀어 성육신 사건의 신비와 신앙인의 본질을 가장 빼어나고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느님을 멀리하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삶과 역사에 개입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높은 권력과 지위를 바라는 세상의 방식과 기대와는 달리 가난한 시골 처녀의 가녀린 몸을 이용하십니다. 연약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 위에 하느님은 은총을 부어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감싸고 동행하시며 하느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기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는 처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열어 자신보다 더 크신 분의 부탁에 응답했습니다. 하느님의 구원 사건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신앙의 결단이 그의 훗날의 평안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구원 사건의 동역자로

초대받아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을 도우며 선교에 동행했지만, 자기 몸에서 나온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지켜보며 애끓는 슬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 고통 끝에서 마리아는 마침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가장 복되신 제자요 성인으로 불리는 까닭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배움은 자주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주었던 이념과 신앙, 관습과 지위를 모두 잃을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이 염려와 두려움은 변화를 거부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사랑마저 배제하려 듭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신앙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길로 우리를 부르실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죽음의 절망에 휩싸여 있을 때, 주님은 먼저 다가와 '두려워하지 마라'하며 인사하십니다.

대림의 신앙은 주님을 두려움 없이 자기 안에 받아들이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자기 몸 안에 예수를 모시고 텃줄을 이어 키우는 일입니다. 그런 다음 성탄의 신앙은 산고를 겪으며 낳고 연약한 이를 보살피 키웁니다. 높으신 하느님이 낮고 가난한 마리아 속으로 뚫고 들어와 성육신이 시작됩니다.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이 작고 위태로운 여인의 뱃속에서 구원의 열매를 키워내십니다.

신앙인은 생각과 마음을 열어 하느님의 불편하고도 두려운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내어 드려 하느님의 뜻이 우리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의 길을 걸으며 세상을 삽니다. 이 일에 두려움을 견디며 자신의 몸을 열어 맡길 때, 우리는 성탄 하시는 그리스도를 품은 '성모 마리아'가 됩니다.

교구장 이경호(베드로) 주교 / 관할사제 최용준(바우로) 신부 / 협동사제 최수재(토마스) 신부

신자회장 최용욱(어거스틴) / 사제회장 김운권(베네딕트) / 원로회장 한명숙(올리야나)

## 봉헌 생활의 영성

“우리 삶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본래 모습을 알아가고,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존재인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봉헌은 우리를 사랑하는 딸과 아들로 불러주신 하느님께 언제나 ‘예’하고 응답하며,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하느님과 이웃에게 되돌려 드리는 신앙의 행동입니다.”  
- 헨리 나우웬

우리 삶은 여행입니다. 삶이라는 여행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불러주시는 하느님께 “예”하고 응답하여 걷습니다. 삶은 사랑을 향한 여행입니다. 초대하고 환대하며 같이 걷는 여행입니다. 평화를 향하고 널리 베푸는 여행입니다.

우리 생명은 숨쉬기로 이뤄집니다. 탄생의 순간 우리는 숨을 들이쉬고, 종내에 우리의 마지막 숨을 내쉽니다. 우리는 생명의 숨을 받고 생명의 숨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선물로 받은 것을 다시 내어주는 행동으로 우리는 하느님께 “예”하고 응답하며 살아갑니다.

널리 베풀고 보살피는 행동을 부모님과 가족, 친구와 교회 식구를 통해서 배웁니다. 세상에는 아낌없이 나누어 주면서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성서와 복음 말씀에는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야기로 우리 봉헌 생활을 격려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세리 자캐오 이야기 안에서 예수님께서 베풀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교회는 봉사와 환대, 그리고 현금 생활로 우리의 봉헌 생활을 격려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이를 보살피는 손길은 고마운 봉헌입니다. 낯선 이를 교회에 초대하고 하느님의 용서와 사랑을 느끼며 살도록 하는 일은 아름다운 봉헌입니다. 우리에게 재물과 물질로 베푸신 하느님의 선물을 다시 나누는 일은 값진 봉헌입니다.

신앙인은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숨결을 들이쉬고 내어주며 우리 생명의 여행을 계속합니다. 받은 선물을 다시 나누고 베푸는 봉헌은 신앙인이 이웃과 세상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하느님께서 베푸신 우리 생명의 여행을 “예”하고 받아들였듯이, 하느님께서 교회와 세상을 위해 널리 베풀라고 하시며 새로운 초대에 “예”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 봉헌 서약은 그 응답의 첫걸음입니다.

### 이번 주간 외울 말씀 9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 교회소식

## 성탄 축하 일정

### \* 12월 24일(주일)

대림4주일 성찬례: 오전 11시(세례성사)  
성탄 전야 행사: 오후 5:00 케이크 만들기  
오후 6:00 저녁 식사  
오후 7:00 성탄 축하의 밤  
오후 9:00 성탄 밤 성찬례

### \* 12월 25일(월)

오전 11시 - 성탄 대축일 성찬례

### ■ 전례와 사목

#### ◆ 세례를 축하합니다

세례성사자 : 김훈나 에스더, 장태현 가브리엘,  
장재현 미카엘, 이지안 스텔라

#### ◆ 설교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주신 조프란시스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 ■ 알림

#### ◆ 성탄 축하의 밤 발표 준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각 활동단체별로 개인별, 가정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마구간 봉헌 안내

따뜻함을 나누는 성탄절이 되기 위해 마구간 안에 봉헌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아진 봉헌금은 인천 나눔의 집 지역아동센터 두 곳의 어린이들 과자 봉지 선물로 쓰여집니다.

#### ◆ 십일조(월정헌금) 서약서 봉헌

2024년도 십일조(월정헌금) 서약서를 기도 가운데 작성하여 성찬례 ‘봉헌’ 순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1일 주일까지)

#### ◆ 대림절기 필사 성서 제출

다음 주일(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우 소식

#### ◆ 생일을 축하합니다

정하라(26일) 권순호(30일)  
◆ 봉헌 감사합니다 류지민 아네스 교우가 산타복을 봉헌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난주일 봉헌 내역

■ 십일조 · 월정헌금 975,000원  
김운권/홍양금 김준우/조장은 이은가 임혜지 장성환 채희발 최하현

■ 주일헌금 268,000원  
고미순 권순호 김소라 류한신 박선희 박종례 백수빈 백옥경 신동홍 유정훈 이윤식 임혜지 장성환 장재현 장태현 조준행 지영주 채희영 최순덕 황선숙

■ 감사헌금 398,000원  
인천나눔교회(최성모 신부, 주영분, 오발렌티노 무명) 김보영 이왕수(생일) 차준섭/김승숙 황선숙(생일) 백옥경(대림절) 이선자(대림절)

■ 마구간 헌금 630,000원  
권순호 류한신 백옥경 이윤식 채희발 최용옥 황선숙 무명

■ 특별헌금 백옥경(나눔의집) 50,000원

### < 성공회 산본교회 봉헌 안내 >

신한 100-033-428656 대한성공회 산본교회

### ◆ 주간 전례독서 (12월 25일~30일 / 성탄 1주간)

	독서	복음
25일(월)	히브 1:1-4	요한 1:1-14
26일(화)	사도 7:51-60	마태 23:34-39
27일(수)	1요한 1:1-9	요한 21:19하-24
28일(목)	1고린 1:26-29	마태 2:13-18
29일(금)	1요한 2:3-11	루가 2:22-35
30일(토)	1요한 2:12-17	루가 2:36-40

### ✧ 기도해 주세요 ✧

#### ◆ 세례성사자

김훈나 장태현 장재현 이지안

#### ◆ 환우 교우를 위하여

강영옥 권영분 기필순 김길자 김승숙 김옥현 박종례 박순호 안병순 임광호 이성중 유근상 유정환 조준행 신부 정시원 채희발 한명숙

#### ◆ 해외 체류

김보미 조민규 조이준 방유미 이형석 디아나 이주안

#### ◆ 새교우(예비신자) 전아영 이요한